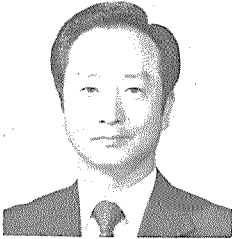


海外市場의 환경惡化와 業界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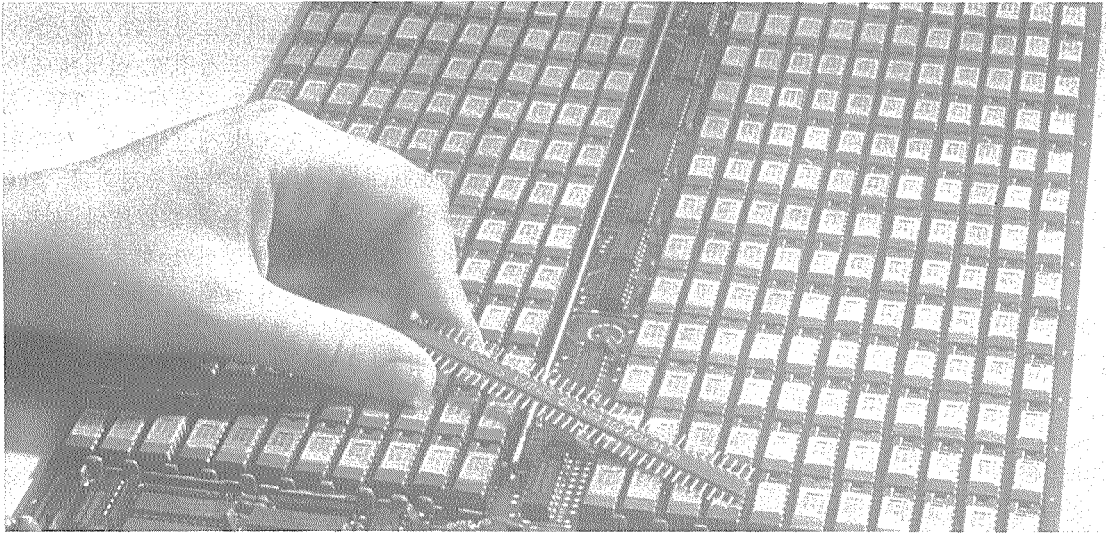
辛 國 煥
商工部 商易局長

해외진출이라 하면
상품수출, 라이선싱, 해외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기업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가 있다. 과거
선진국들의 기업발전과 도태과정을 보면
일본의 진출전략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기업들은 그들의 전략을 감지하지
못하였거나 근시안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장에서 도태되었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을
많이 볼 수 있다.

1. 新保護貿易主義의 蔓延

世界經濟는 2次大戰 이후 20여년간 高度成
長을 지속하였고, 특히 貿易의 증대는 國際分
業의 증대와 效率的 資源配分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世界經濟成長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世界貿易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國際
金融秩序의 안정과 世界經濟의 高度成長 그리
고 「브레튼 우즈」 체제의 확립에 따른 貿易協
力基盤의 조성과 自由·無差別 多者主義의 貿
易自由化의 진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도 이 시기에 있어서는 低賃金의 풍부한 노동력
에 바탕을 둔 輸出主導 戰略에 의하여 經公業
부문의 급속한 輸出伸張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와 世界經濟는 71年 낙
승措置를 계기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
고 자원위기의 표면화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으
며 이에 따라 國際貿易 環境도 크게 악화되고 말
았다. 이에 따라 선진국간의 貿易摩擦과 선진
국들의 開途國에 대한 輸入規制가 늘어나게 되
었는데 이러한 新保護主義의 擡頭背景을 요약하
여 보면, 石油波動으로 世界經濟가 沈滯로 전환
된 이후 장기적 不況을 겪는 동안 貿易需要가
세계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되었고, 安定成長期
에 정착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先進經濟가 경
직화된 상태에서 長期의 景氣沈滯로 失業率이
더욱 증가되어 經濟의 적응능력이 저하되었으
며, 中進國의 勞動集約的 産業 중심으로 비교우
위분야의 확대와 자원의 相對價格의 昂騰 등에
따른 선진국의 비교우위변화에 대한 요구에 부
합하는 産業調整 能力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經濟間 상호 依存性과 公業化의 파급과 더
불어 經濟構造의 유사성이 深化되는 과정에서
일본과 中進國의 對先進國 貿易은 産業間分業의
性格이 농후하고 특히 對美國輸出은 美國의 傳
統産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各國의
貿易依存度가 커지게 됨에 따라 通商政策에 대



해외시장 확대에 있어서는 마케팅 능력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 政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었으며, 심각한 貿易收支의 不均衡, 變動換率制度의 不安定性 등 國際金融의 非均衡要素가 산재되어 保護主義에 의한 급속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保護貿易의 수단과 최근 規制動向을 보면 關稅面에 있어서는 數次에 걸친 關稅引下 協商으로 선진국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 섬유, 신발類 등은 아직도 높은 關稅率을 유지하고 있으며 開途國에 供與하고 있는 一般特惠關稅도 卒業概念을 導入하여 先發開途國에 대한 授惠幅을 축소하고 있다. 非關稅障壁을 類型別로 보면 數量規制面에 있어서는 一方 規制, 雙務協定, 自律規制 등의 방법이 성행되고 있고, 價格規制面에 있어서는 反덤핑 및 相計關稅制度를 남용하고 있고 特定品目에 대하여 最低價格制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안전기준, 공업표준기준 등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輸入規制手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복잡한 通關節次, 불리한 關稅分類, 기타 독특한 행정지도에 의한 輸入規制 措置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중 規制를 받으면서 수출한 實績의 比重을 보면 75년의 경우 975百萬弗로서 對先進國 수출중 23.6%에 불과하였으나, 81년에는 45.8%, 82년에는 42.8%, 今年 3月末 현재는 44.3%에 달하고 있다. 81년 이후 輸入規制 比重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輸入規制가 완화

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規制品目의 수출감소와 船舶等 非規制品目의 수출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規制下の 輸出比重〉

(單位: 百萬弗, %)

年度別	被規制品目의 輸出實績 (A)	對先進國 總輸出 (B)	比重 (A/B)
1975	975	4,125	23.6
1980	4,244	11,131	38.1
1981	6,025	13,168	45.8
1982	6,010	14,036	42.8
1983	6,471	16,270	39.8
1984 (1-3)	1,878	4,238	44.3

電子에 있어서도 美國에 있어서의 컬러TV 反덤핑提訴, 캐나다에 있어서의 電子렌지 反덤핑提訴, 英國에 대한 흑백 TV와 音響機器의 自律規制 그리고 EC에 있어서의 電子時計에 대한 쿼터規制 움직임 등 先進各國으로부터의 輸入規制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新保護主義는 80年代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 요소의 산재, 保護主義의 근본적·장기적 해결책인 관련국들의 적극적 산업조정 의 지연, 그리고 開途國外債 등 國際金融의 불확실성이 常存하고 있어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貿易環境의 악화는 後發開途國들의 맹렬한 추격과 아울러 貿易立國

에 의한 經濟成長을 달성하여야 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加重시키고 있다.

2. 우리의 對應方向

開發途上國들의 貿易摩擦回避의 방법들은 해당 商品의 海外生産 실시, 輸出市場의 다각화, 해당 商品의 고급화, 相對國 브랜드에 의한 輸出移行, 輸出伸張率의 억제 등의 방법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輸出産業構造가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物的·人的資本, 技術 등 우리의 競爭力 要素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輸出産業構造 비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産業用機械, 部品, 産業用 電子機器, 精密化學, 컴퓨터, 家電製品, 一般機械, 自動車, 플랜트 機資材, 工作機械, 電子式 事務機器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尖端技術의 습득에 의한 電子·機械分野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國際需要, 規模의 利益, 産業聯關效果, 外貨稼得 등 우리의 요구 기준을 가장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망분야라고 결론지어지고 있다.

특히 電子産業은 연평균 12% 이상 世界市場規模가 증가하는 成長主導産業이면서 附加價値가 높고, 에너지 및 資源節約의이며 産業聯關效果가 크고 非公害性일 뿐만 아니라 輸出規模증대에서 오는 通商摩擦을 피해 나가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의 與件上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電子産業은 素材 및 部品輸入의 誘發度가 높고 國際下請形態의 수출에 의존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綜合電子業體의 공장 건설과 先進技術 도입이 활발하게 推進되고 있으며 자체의 研究開發投資와 기술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매우 전망이 밝다 하겠다. 한편 외국의 尖端技術 보유업체의 投資誘致도 확대되고 있어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보완하므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 輸入規制와 後發開發途國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構造的 調整 이외에도 保護貿易主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안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쟁력이 불리해지고 있는 단순 노동집약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 自由貿易地帶에 진출하거나 TV 등 組立工業은 현지 시장에서 생산체제를 갖추는 등 輸入規制回避型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외환이 부족한 나라를 상대로는 連繫貿易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輸入規制가 적은 部品輸出을 증대하고 有望·潛在輸出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소나기식 수출, 우리 업체끼리의 過當競爭을 방지하여야 하고, 少額少量輸出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通商外交의 強化面에서는 各 部處間에 산재하고 있는 對外通商關聯情報를 총괄하는 對外通商外交組織의 綜合化가 필요하며, 相對國과의 官民 교류의 저변확대를 통한 相互利益의 증진과 民間主導의 海外弘報強化로써 貿易摩擦을 사전에 예방하고 通商增大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3. 業界의 姿勢

우리나라가 輸出立國이 되기 위해서는 政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의 기업들이 경영자나 근로자를 막론하고 모두 國內市場과 海外市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世界 속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또한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國際感覺과 責任意識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意識의 바탕 위에서 적극적인 海外進出을 꾀하고 世界 어디든 유리한 곳에서 생산하고 이익있는 곳이면 판매한다는 자세로써 기업을 경영하여야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서도 産業構造調整이 원활히 될 것이며 國際收支問題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輸入自由化에 의한 해외경쟁의 도입, 과거 政府主導型 輸出드라이브 政策으로부터 企業自律競爭體制로의 이행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진출이라 하면 商品輸出, 라이선싱, 海外投資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기업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가 있다. 과거 先進國들의 기업 발전과 淘汰過程을 보면 일본의 적극적인 進出戰略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기업

들은 그들의 전략을 感知하지 못하였거나 近視眼的으로 對處함으로써 市場에서 淘汰 되었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을 많이 볼 수 있다. 참고로 TV部門에서 히다찌社의 生産哲學을 보면 世界各處에 生産基地를 설립함으로써 분산된 生産의 體系를 발전시키고 TV 사업을 1個 國家만의 觀點에서가 아니라 全世界의인 觀點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全世界의인 觀點에서 企業을 경영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며 나아가서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창조함으로써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輸出規模가 3百億弗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기업인들의 國際化 經營戰略의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技術導入에 의하여 輸出産業化할 수 있는 부문은 가장 적합한 기술의 도입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合作投資로서 기술을 보완하며, 우리가 開發能力이 있고 先進國이 提供을 忌避하는 技術은 자체 개발토록 政府과 企業이 함께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後發開途國의 진출에 의해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分野에서는 海外投資로 그들의 強點을 이용하거나 라이선스를 販賣하는 방법을 취하고, 先進國의 輸入規制가 강화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部品輸出과 現地組立生産을 추진하거나 주변국의 輸出自由地域에 진출하여 회피하는 방도를 구하여야 한다. 海外市場擴大에 있어서는 마케팅能力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海外市場 需要者의 니즈(Needs)의 변화와 需要패턴의 파악 그리고 流通構造의 분석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수출이 증대될 수 있고 채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어에만 의존하는 수출을 지양하고 자체의 마케팅 조직을 구비함으로써 진정한 國際企業이 될 수 있다. 生産面에 있어서도 大量需要가 있어 규모의 經濟가 필요한 부문

에 있어서는 生産의 集中, 大型化로 生産單價를 줄이고 輸出競爭力을 키우며, 需要의 多樣化로 生産製品의 多樣化가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少額少量生産體制를 갖추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生産施設의 자동화, 經營管理의 자동화가 先行되어야 원활히 推進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어管理에도 신경을 써서 輸出先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OA, FA 등의 자동화가 우리 産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要諦가 될 것으로 보이며 臺灣과의 競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政策課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企業들에게 중요한 것은 企業内部에 있어서도 生産과 販賣가 서로 협조하는 體制가 이루어져야만 市場需要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企業의 원활한 성장이가능한 것처럼 部品業體와 組立業體間, 同種業體間에서도 協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서로 공존할 수 있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電子産業에 있어서는 점점 짧아지는 製品의 Life Cycle, 막대한 研究費所要로 대규모의 垂直統合企業에 有利하도록 된 面이 있으며 素材, 部品, 組立間에 迂廻도가 높은 産業이어서 경쟁력이 關聯企業들의 원활한 정보의 소통, 철저한 품질관리 등 一切感으로 뭉치고 協力함으로써 솟아날 수 있다. 또한 同種企業間의 共同研究開發로 研究開發投資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여 보면 世界 속에서의 企業經營이라는 眼目을 가지고, 海外動向의 “Listening Post”를 운영함으로써 끊임없이 海外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國內의 與件變動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企業의 強點을 더욱 강화하고 弱點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技術蓄積, 品質向上, 生産性向上에 注力하여야 되겠다. 政府로서도 이러한 企業人들의 노력에 附加하여 企業의 國際化를 달성할 수 있도록 與件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